

# 북

Books

## “지도자 잘못된 선택은 비극 초래한다”

대통령의 오판

크라우프웰·펠프스 지음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많은 판단을 내린다. 그 중에는 당시에는 옳다고 믿었으나 결국 잘못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투자한 주식에서 손해가 나고, 꿈꿔온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파트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오판을 하더라도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 그 결정의 주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가 내린 지시가 한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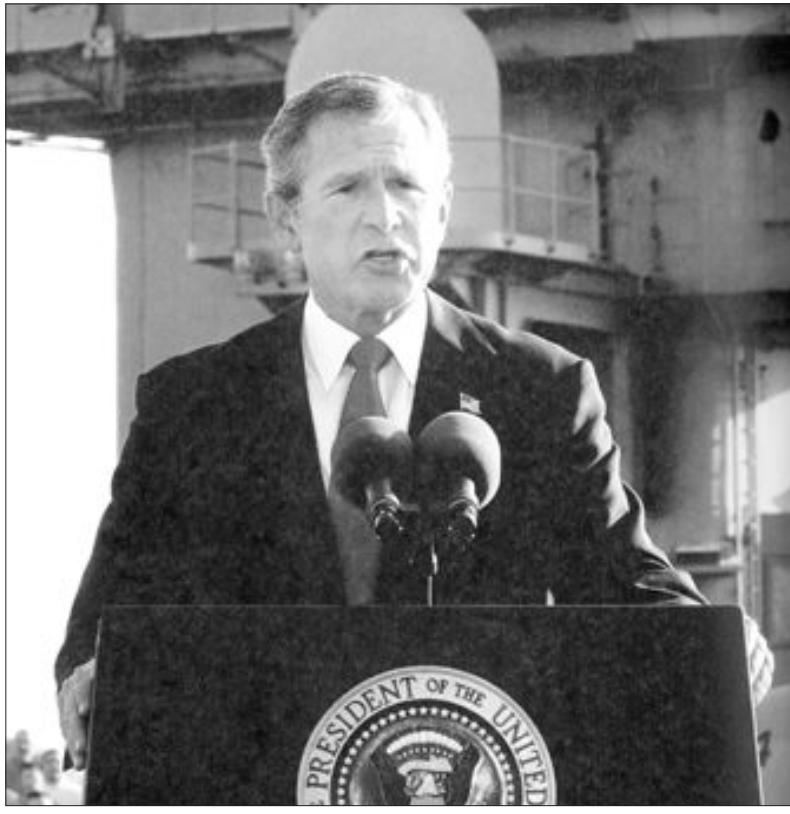
미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J. 크라우프웰과 언론인 M. 윌리엄 펠프스가 공동으로 펴낸 ‘대통령의 오판’은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되짚어 본다.

2003년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그 중의 한 사례다.

사람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근거로 이라크 침공을 지시했던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판단은 옳은 것인 줄 알았다. 또 이라크 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고 자본주의 정부를 세움으로써 중동 지역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성공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전쟁 과정에서 4000명이 넘는 미군과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바그다드는 자살폭탄 테러와 지뢰 등으로 망가졌다.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미군들이 포로를 학대하는 사진이 공개돼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와 관련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유명 인터뷰어인 바비라 월더스에게 “내가 입수했던 정보는 부정확한 것이었으며 이 사실은 언제까지나 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파월은 공식이 시작되기 전 부시를 찾아가 “아랍 국가를 점령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시간 반에 걸친 파월의 설득에도 조지 부시는 전쟁의 동기가 되었던 일부 정보들이 잘못된 것이 있음을 시인했다.

책은 이외에도 18세기 조지 워싱턴의 위스키 폭동부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큰 오점을 남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일본에 미군인 강제 수용, 베트남전 발발의 전초기 된 린든 존슨의 통킹만 사건, 케네디의 피그스만 침공 등 미



책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잘못된 정책이 미국 역사와 세계사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하게 조명하고 있다. 사진은 2003년 이라크 전투 작전의 원료를 선언하고 있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서울출판 글빛님 제공>

국 대통령 18명이 결정한 20개의 잘못된 정책이 미국 역사와 세계사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하게 조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대통령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 선택권 등을 살펴보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책은 당시의 오판을媒介하거나 ‘대통령이 어떻게 오판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따위의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판이 빚어지는 전후 상황을 상세히 보여줌으로써 해법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각각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가? <말글빛님·2만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예술의 사회학적 통찰

명쾌한 논거 제공하다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예술과 그의 예술에 대해 품었던 많은 물음에 대해 명쾌한 논거를 제공하는 예술사회학 입문서 ‘예술사회학-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가 번역돼 나왔다.

저자 빅토리아 D. 알렉산더(영국 서리대 교수)는 ‘어린이 책에 나타난 흑인의 이미지나 폭력과 헬비전의 관계’, ‘서부 영화에서 카우보이와 인디언의 묘사’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돋운다.

‘예술’이라는 범주에 대중문화가 포함될 수 있는지 등 사회학적인 장르로 이론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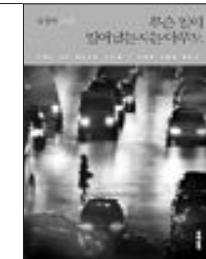
(설립·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김영하 지음

‘김영하 돌아왔다.’



소설가 김영하가 작품집 ‘오빠가 돌아왔다’ 이후 오랜 만에 소설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를 펴냈다. 그간 ‘퀴즈쇼’, ‘빛의 제국’ 등 장편소설은 여려편 냈지만 단편소설집을 낸 것은 6년만이다.

무엇보다 “청탁 없이 내킬 때 쓴 소설이 대부분이어서 모아 읽는 흥미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고 막힘이 없었다”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쓰고 싶을 때’ 쓴 이번 단편들은 예전 작품의 매력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움이 가득하다.

김영하는 도회적인 매력을 풍기는 작가다. 그의 소설들을 읽다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트위터나 스티브스(‘오늘의 커피’)에서 주인공 이름은 아예 없고 대신 ‘카페라떼’와 ‘오늘의 커피’가 이름을 대신한다)나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서만은 아니다. 그의 소설속에는 시대의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렷이 보인다. 모두 18편의 작품이 실린 이번 소설집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유쾌한 작품은 ‘마코토’다. 일본 유학생 마코토를 짜사랑했던 대학원생이 과거를 회상하며 들려준 이야기는 ‘오해’가 빛어낸 마지막 장면에서 웃을 뜻이다. ‘인간을 해쳐서는 안된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

야한다’, ‘위 두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소설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소재로 한 ‘로봇’은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를 곱씹어 만드는 작품이다.

아이스크림에서 이상한 ‘기름 냄새’를 맡은 부부가 자신들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제과회사 직원과 만나는 모습을 그린 ‘아이스크림’에는 씁쓸한 중년 회사의 소품이 되어가는 이들의 비애가 아련거린다.

그의 단편속에는 예리함과 섬뜩함이 함께한다. 곱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피부과 접수 담당 직원이 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겨우 한페이지 짜리 단편 ‘명예살인’은 아찔하다.

(문학동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대의 공기를 염안은 현대인의 모습

대인동삼일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양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휴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도림구,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토지매매

■감정가 이하

- 남구 서동 대지 467㎡(141평) 건물은 50평과 101평 2동 있음.
- 금지역 4억5300만원 매도 3억1500
- 단임을 상업지역 245평 공시지기에 매도 1억9천만원
- 총정로 5가 버스도로 대지 27평 건평 32평 매도 2억1500
- 불신동 대형상설 대지 538, 건평 200 평 공시지가 199평원, 대출 11억 매도 18억
- 금남로 2가 대로변 대지 400, 건평 982 평, 지가 82억 매도 41억
- 4층건물 대지72, 건평 200 평 공시지가 3억 매도 2억8천
- 신민동 상업지 310㎡(94.65㎡) 대지 3억원 매도 2억4천
- 미복동 사업지, 미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누워진 소방도로 275㎡(83평) 대지 15억6천
- 총정로5가 5평 건물 대지 32평 156 평 공시지가 3억 매도 5억
- 금남로 6차선 압입길과 뒤 주택 영업을 적합 공시가 840만원
- 복신동 6차선 도로 대지 135평 173 대출 6억5천
- 목포시 대지 413평 3층건물 공시지가 6억5천 매도 6억2천
- 금남로3가 대지 100 건평 311 평 공시지가 6억6천 매도 7억6천
- 금남로 5가 대로변 대지 83평 건평 319평 공시지가 12억5천 4층과 5층은 공실이고, 전세 1억에 월 600만원 베도 16억
- 금남로 4 대로변 대지 237 평 1463 평 공시지가 40억 3천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 5억으로 월세 1억 대로 39평

■매도·교환

- 두일동은 4차선도로 196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만원
- 원동 광장과 일대 108평 건평 383평 둑우 17개 원동 6개 2개는 금지역 전세 8500 월 650 매도 7억2천
- 모일동 대지 103평 건평 336평 9억5천원 평과 교환 9억4천
- 모현동 송정로 대지 290평 건평 367 평 건축가능한 평과 교환 9억5천
- 생신동 서구 세하동 850평 광장동 다음도 414평
- 생신동지 3층건물 공시지가 6억5천 매도 6억2천
- 총호동 유수동 있는 단 57평 대지 10평 평당 1억3천
- 전원주택지 승선유원지 박호동 39평 사설 적합 분양가는 1억 8500
- 복구 흙풀로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000만원
- 생신동지 서구 덕흥동 1602평 공시지가 823평 매도 9억4천만원
- 지연동 706평 매일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회현동 낙주동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원
- 회현동 한현동 한리지역 등 임야 13,862평 광장 등 다른도 평당1200원
- 서구 유동을 생신동지 1631 평과 철고, 공시지가 14억 3천 찾고는 1년 시급세 2200만원에 임대증정 22억 560만원
- 월동건물 회정동 대지 91평 건평 145평 원룸 10개 룸 3개 쓰리룸 2개 주택이고 전세 1억원 월 380 매도 6억3천 주택은 주민이 사용 고급상업지역 광신동 우신동 998평 경영환경 좋음 6억 7천

건물매매

위치 임대 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위치	임대	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한신동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성동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동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동	25억	6,500만원	100억원	
첨단동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휴 011-608-5221  
(상무동지구 이어폰 김자랑 1층)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남구 서동 대지 467㎡(141평) 건물은 50평과 101평 2동 있음.
- 금지역 4억5300만원 매도 3억1500
- 단임을 상업지역 245평 공시지기에 매도 1억9천만원
- 총정로 5가 버스도로 대지 27평 건평 32평 매도 2억1500
- 불신동 대형상설 대지 538, 건평 200 평 공시지가 199평원, 대출 11억 매도 18억
- 금남로 2가 대로변 대지 400, 건평 982 평, 지가 82억 매도 41억
- 4층건물 대지72, 건평 200 평 공시지가 3억 매도 2억8천
- 신민동 상업지 310㎡(94.65㎡) 대지 3억원 매도 2억4천
- 미복동 사업지, 미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누워진 소방도로 275㎡(83평) 대지 15억6천
- 총정로5가 대로변 대지 83평 건평 319평 공시지가 12억5천 4층과 5층은 공실이고, 전세 1억에 월 600만원 베도 16억
- 금남로 4 대로변 대지 237 평 1463 평 공시지가 40억 3천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 5억으로 월세 1억 대로 39평

■매도·교환

- 두일동은 4차선도로 196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만원
- 원동 광장과 일대 108평 건평 383평 둑우 17개 원동 6개 2개는 금지역 전세 8500 월 650 매도 7억2천
- 모일동 대지 103평 건평 336평 9억5천원 평과 교환 9억4천
- 모현동 송정로 대지 290평 건평 367 평 건축가능한 평과 교환 9억5천
- 생신동 서구 세하동 850평 광장동 다음도 414평
- 생신동지 3층건물 공시지가 6억5천 매도 6억2천
- 총호동 유수동 있는 단 57평 대지 10평 평당 1억3천
- 전원주택지 승선유원지 박호동 39평 사설 적합 분양가는 1억 8500
- 복구 흙풀로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000만원
- 생신동지 서구 덕흥동 1602평 공시지가 823평 매도 9억4천만원
- 지연동 706평 매일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회현동 낙주동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원
- 회현동 한현동 한리지역 등 임야 13,862평